●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쌔 고민하고 슬퍼하사

Y tomando a Pedro, y a los dos hijos de Zebedeo, comenzó a entristecerse y a angustiarse en gran manera.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Entonces Jesús les dijo: Mi alma está muy triste, hasta la muerte; quedaos aquí, y velad conmigo.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Yendo un poco adelante, se postró sobre su rostro, orando y diciendo: Padre mío, si es posible, pase de mí esta copa; pero no sea como yo quiero, sino como tú.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Vino luego a sus discípulos, y los halló durmiendo, y dijo a Pedro: ¿Así que no habéis podido velar conmigo una hora?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Velad y orad, para que no entréis en tentación; el espíritu a la verdad está dispuesto, pero la carne es débil.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Otra vez fue, y oró por segunda vez, diciendo: Padre mío, si no puede pasar de mí esta copa sin que yo la beba, hágase tu voluntad.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Vino otra vez y los halló durmiendo, porque los ojos de ellos estaban cargados de sueño.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Y dejándolos, se fue de nuevo, y oró por tercera vez, diciendo las mismas palabras.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Entonces vino a sus discípulos y les dijo: Dormid ya, y descansad. He aquí ha llegado la hora, y el Hijo del Hombre es entregado en manos de pecadores.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Levantaos, vamos; ved, se acerca el que me entrega.

88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학습목표는 예수님께서도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셨음을 알게 한다.

그리고 기도에 힘쓰며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한다 라는 학습목표를

가지고 공과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 서쪽 기슭에 있는 그러한 동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 이곳에서 기도를 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목요일 밤 깊은 그 곳에 주님은 가셨고 기도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러한 심적인 고통을 아뢰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시며 그 죄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친히 짊어지시고 잔을 마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기도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 먼저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기도는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말씀을 잡으시고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좇았더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습관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습관을 보면서 과연 나에게 있는 습관은 어떠한가 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고 하며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주는 척도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어려움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습관이 그러하였고 모든 것을 먼저 주님께 아뢰는 그러한 인격이 형성이 되어 있었으며 성품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말씀을 묵상하다보면 많은 그러한 습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습관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던 습관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좋지 못한 습관들이 혹시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또한 그러한 것이 나의 인격으로 형성되어 있지는 않은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성경말씀 예레미야 22장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2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어떤 사람들은 부모의 말을 평상시에 잘 듣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습관을 가졌던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하나하나를 생각할 때 때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순종한다 라고 하면서 적은 것에는 순종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적은 것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러한 모습은 나의 습관이 될 것이며 또한 나의 인격으로 형성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자기의 뜻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사울왕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잇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은 우리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일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또한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갖고 그러한 순종의 습관이 인격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고정되어 가기를 또한 바랍니다.

성경말씀 히브리서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에 대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고 얼만큼 하나님의 그러한 거룩한 모임 가운데 교제가운데 함께 하고 있는가 혹시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이 나에게는 있지 않은가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교제를 힘쓰고 교제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이 선생님들에게 나아와 배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볼 것입니다.

또한 모이기를 힘쓰나 늦게 모이는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항상 지각하고 다른 선생님들을 기다리게 하는 선생님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모임 가운데 동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주님이 동참하고 계시는 그곳에 주님을 기다리게 하고 계시지는 않은가

항상 먼저 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형제자매님들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선생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말씀을 생각해보기 전에 주님의 기도의 습관을 한번 생각해보았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잡히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은 항상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찾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몰랐다면 군병들을 데리고 이산 저산을 헤매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렵지 않게 예수님들 찾을 수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가면 기도하고 계시던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나를 만나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찾는다면 어디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까요.

내가 주로 시간을 보내는 곳 내가 주로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기도하고 계셨고 항상 기도하는 곳에 계셨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곳에서 만날 수가 있겠는가

교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근심케하며 또한 가지말아야 될 곳에 있지는 않는가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서 어린이를 만날 수가 있는가

아니면 항상 오락실에 인터넷 게임하는 그곳에서 어린아이들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기도하는 곳이며 말씀이 보는 그곳이 되기를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본문 마태복음 26장으로 돌아보시겠습니다.

26장 37절 38절 보시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쌔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은 참으로 주님의 마음이 되어보지 않고는 공감할 수 없는 마음일 것입니다.

주님을 평생 따랐다고 하는 주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겠다 라고 다짐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러한 고민스럽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짐을 나의 죄를 지시고 그 죄짐의 무게로 인해서 심히 고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었기에 그 고난과 고통의 잔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 것이었으며 그러고 그 죄가 얼마나 주님을 고통스럽게 했는가를 더욱 생각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참으로 그 고민 가운데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어려움과 곤란이 있을 때 먼저 그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볼 것인가?

혹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의 지혜는 무엇이며 또한 나를 도와줄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사람을 찾아보게 됩니다.

주님은 곤란한 가운데 먼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당장 죽임을 당하여 된다고 하고 또한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과연 주님과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그 기도의 내용은 결코 과격하거나 또한 주님을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나에게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혹시 원망하고 또한 큰소리로 그 현재의 상황을 부정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곤란한 가운데 겸손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러한 모든 문제를 아뢰었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39절 말씀을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곤고할 때 하나님께 나아갔으며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환난 가운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참으로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를 것 하나님께 아뢸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때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영화롭게 해주시겠다 하는 확실한 약속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또한 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찌니라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야곱이 자기의 형 에서를 만나기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앞에 했던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였으며 또한 히스기야가 살헤립의 편지를 받고 참으로 두려움 가운데 선택했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먼저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서 몸소 행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곤란한 가운데 먼저 가장 아뢸 그러한 친구가 하나님이 되야할 것은 분명한 그리도인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말씀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시고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단순히 주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기도를 마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 자기의 뜻을 순복할 것을 하나님 앞에 나타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고난의 잔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주님의 간증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기도만 했다면 과연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참으로 염려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라는 말은 우리에게 참으로 위안이 됩니다.

인간으로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의 그러한 연약한 모습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로서 그 죄의 짐을 기꺼이 지시고 그리고 나를 구속하기 위한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성자셨습니다.

그래서 이 한 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2가지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

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주님 앞에 아룁니다.

그런데 뭐라고 아뢰십니까?

단순히 나의 어려움을 들어주십시오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고통 가운데 건져주십시오.

아니면 그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순종하기를 구하시는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기대하셨고 또한 하나님께 순복하는 기도를 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만 아뢰고 그것만을 하나님께 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고통을 받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기꺼이 그 잔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환난과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선 나에게 그게 맞다면 그러한 환난과 곤고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고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전히 그 모든 문제에 대

한 해결을 주님께 의뢰하고 나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나의 모든 염려와 나의 모든 걱정을 담당해주시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만 주님의 뜻에 순복하며 나의 뜻을 굴복하는 게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그러한 나의 모습일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겸손하고 완전히 복종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26장 39절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자체가 참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표시해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졌고 순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자세의 표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본문을 잡으시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를 떠나 돌 던질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엎드린 그 자세가 무릎을 꿇고 엎드린 자세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한 외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특별히 많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중심의 하나님께 아뢰지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한 우리의 모습으로 표현된다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얼굴을 엎드리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과 같은 기도의 자세를 나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기도는 은밀한 중에 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뢸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혹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심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함께하는 기도도 있었을 거지만 이 곳에서의 기도는 혼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가사 또한 또는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셔서기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라고 책망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곤란한 중에 처해계실 때 가장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고 계실 때 베드로는 자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찌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35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찌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사람보다 자기는 특별히 더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과 함께 죽겠다 라는 각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고통을 함께하지 못하고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적인 결심 또한 스스로 결정한 그리스도인의 다짐은 참으로 연약하다 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완전하지도 못하고 오래가지도 못합니다.

참으로 나는 나의 결심만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는 없다 라는 것을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참으로 안쓰러워하셨고 그리고 또한 베드로에게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했던 그러한 기도의 시간은 약 1시간 정도였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시면

나와 함께 한시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던 그러한 예수님의 기도는 아주 짧은 기도였지만 그 기도의 시간은 한시간 아마 더 많은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의 내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단 한 번이 아니고 세 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러한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시험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한 시험 가운데 놓여있을 수는 있지만 하지만 시험에 들지는 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시험에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바로 가장 좋은 것이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도 가장 어려울 때 깨어 있어 기도하셨으며 그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베드로와 같지 못하고 또한 다른 제자들과도 같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러한 시험당할 즈음에 기도하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나는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시험에 빠져있는 자기의 모습을 볼 것이며 또한 시험에 들어있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깨어 있어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평안과 위안을 준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디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러한 말씀으로 위

로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안심하려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단순히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실망하라는 그러한 위로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또한 우리의 육신 분명히 서로 원수가 되고 있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한 영으로 번역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그러한 육신은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빠져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게 되면 어떠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그런 연약한 육체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서 이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한 육체로 능히 마귀의 시험을 담당할 수 없기에 참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 기도할 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 또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그러한 생리의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습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고난 중에 먼저 주님께 아뢰야 할 것이며 모든 어려움 가운데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고난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만을 극복하고 이기기만을 기도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러한 선생님 어린이들이 되야되겠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는 그러한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허락하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담당하셨던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가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저를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주님의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들 주님이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또한 주님을 따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옵니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고 또한 함께 주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 하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국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 참으로 주님께 받은 이 귀한 사명을 주님 오실 그 날까지 온전히 이루며 우리 아이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는 그러한 어린이들로 성장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의 희생과 선생님들의 사랑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능히 감당하여 주시옵고 참으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충성되이 주님의 일을 해나아가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주님께 아뢰고 또한 항상 주님께 아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순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를 우리가 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